

OECD/DAC 원조개혁그룹(Reflection Group) 회의 결과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OECD/DAC 원조개혁그룹(Reflection Group) 회의는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원조 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8년 7.2일 뉴욕에서 1차 회의가, 10.9~10일 미국원조청(USAID)에서 2차 회의가, 12.10~11일 OECD 본부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I. 배경 및 개요

최근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국제원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원조체제가 변혁기를 맞이함으로써, 원조 공여기관을 비롯한 공여국들의 향후 개발원조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5.21일 OECD/DAC 고위급회의(HLM)에서는 DAC개혁 추진 기구로 원조개혁그룹(Reflection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007년에 실시된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기되었던 DAC의 구조와 기능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로, DAC의 기존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국제원조체제의 변화상을 수용한 DAC개혁 및 새로운 임무(mandate)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국제원

조체제에 다양성(Diversity)과 원조 규범에 유연성(Flexibility)을 반영하여 DAC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II. 회의 내용

1. OECD/DAC 원조개혁그룹 1차 회의

가. 핵심내용

2008년 7.2일 뉴욕에서 OECD/DAC의 원조개혁그룹 1차 회의 개최되어 DAC 개혁방향에 관해 협의하였다. 원조개혁그룹은 기본적으로 DAC의 비교우위를 갖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DAC의 적실성(relevance)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DAC의 기본 정체성은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DAC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강화시켜 나가야 할 업무와 축소 조정해 나가야 할 업무를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가. 토의내용

원조개혁그룹은 OECD성장과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가 최근 발표한 '성장 보고서(Growth Report)'를 검토 분석하여 무역, 투자 등을 통한 국제시장 활용과 국내 개발 자원 부족을 ODA로 보완, 정부의 강한 리더십 필요성 등 개발원조 분야의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의 국제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실성 있는 DAC개혁작업을 위해 영국 국제개발청(DFID)이 작성한 '개발원조의 장기적 환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발환경의 복잡성 증가와 원조파편화 심화 및 기후변화, 인구증가, 식량 에너지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국제환경이 개발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DAC개혁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Deutscher DAC의장은 국제개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DAC의 적실성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현상유지(staus-quo)가 아닌, DAC의 개혁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 연관(cross-cutting)이슈간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일

관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DAC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원조기준 설정, ODA통계 기능, 동료검토 등의 분야에서 단순한 기능 강화로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DAC의 적실성 강화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DAC개혁방향 설정을 위해 DAC사무국은 회원국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개혁검토를 과제별로 분류하고, 회원국은 입장(option paper)을 제출하여 입장 수렴과정을 갖기로 하였다.

2. OECD/DAC 원조개혁그룹 2차 회의

가. 핵심내용

OECD/DAC의 국제원조체제에서의 역할, 기능, 조직 등 전반적인 개혁방향 마련을 위해 수립된 원조개혁그룹 2차 회의가 2008년 10.9-10 일 양일간 미국원조청(USAID)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원조체제 개선을 위한 2차 회의에서는 DAC의 역할에 대한 토의와 함께, DAC의 중점목표를 기존의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 설정과 비전제시 및 필요성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전반에 있어 DAC역할 강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 토의내용

1) 원조체제 및 DAC의 중점 목표

(1) 원조체제

초청연사 Mr. Rogerson(영국 DFID 출신 개발전문가)은 DAC이 국제원조 체제 선도 노력을 포기할 경우, 원조 조정체로서 DAC의 위상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DAC의 원조체제 개혁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원국, 신흥공여국, NGO 등 여타 개발원조공여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DAC관리구조 개선(3자대표 관리구조 등)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DAC이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며, non-DAC 공여국과 정기적 교류, 대화 채널 강화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다자원조기관의 수와 원조 규모면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조율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및 DAC의 다자원조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수임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2) 원조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전환

원조개혁그룹의 조력자인 Paul Bermingham은 DAC의 향후 최우선 활동목표로서 원조(aid)와 개발(development) 중 택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국들은 전체 개발재원 중 ODA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점과 원조(aid)에 치중할 경우 중장기적 위상 저하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 DAC의 향후 중심목표를 현행원조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차기 과제로 개발 및 개발성과를 중심으로 DAC 명칭 변경, 역할과 기능 재정립,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OECD내 개발업무 협력체제 구축 문제 등을 추가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2) DAC의 비교우위 강화

참가국들은 DAC이 비교우위를 갖는 핵심업무로 통계(statistics), 동료검토(peer review), 원조규범 수립(standard-setting) 3대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분야의 보다 적실성있는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일부 국가는 DAC 개혁을 핵심업무의 역량강화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제기하였으나, 대다수 참가국들의 의견에 따라 핵심역량 강화 및 전반적인 역할 확대라는 DAC개혁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 DAC 업무방식 및 효율성 개선

Carey 개발협력국장은 DAC의 전반적인 조직체계 및 산하기구 조직현황을 설명하고, DAC이 그간 비전, 파트너십 원칙, 정책일관성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 원조 파트너십 체제 구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설명하였다. 일부 참가국들은 DAC이 전통 공여국간 포럼이라는 제한적 정체성을 확대하여, 신흥공여국에도 개방, 개발성장 전략(growth strategy for development)관련 관심제고, 개발협력국과 OECD 여타국(directorate) 간의 정례 개발업무회의 개최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4) 미래의 글로벌 시나리오와 개발협력 정책

독일은 향후 2030년 경의 세계환경 변화를 세계경제, 세계관리체제, 지구환경(earth system) 등 3개 분야에서 전망하고, (1) 협력적 세계관리체제, (2) 대립적 세계질서, (3) 평화적 권력 전환의 3가지 가상 시나리오별

로 개발협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참가국들은 장기 세계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개발정책의 유용성에 동의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DAC의 역할 확대 및 핵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OECD/DAC Reflection Group 3차 회의

가. 핵심내용

OECD/DAC 원조개혁그룹 제3차 회의가 2008년 12.10-11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DAC의 비전 및 목표, 회원국 확대 문제 및 활동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토의내용

1) DAC의 비전 및 목표

최근의 금융위기,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DAC의 향후 비전 및 목표를 담은 Vision Paper 초안을 2009년 1월말까지 작성하고 2월 제4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2) 회원국 확대 문제

기존 가입조건을 유지하되, 가입을 희망하는 후보

국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Non-DAC 공여국을 옵서버로 참여시키고 주요 개도국들로 구성된 자문단(advisory body)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 DAC 활동 우선순위

DAC의 활동방향을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확대하기로 하고 통계, 동료검토, 원조효과, 개발원조 기준설정 등 DAC의 핵심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개발 연관성이 큰 국제개발체제, 정책 일관성, 세계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였다.

4) DAC 조직 및 거버넌스

DAC의 각료급회의(HLM), 고위관리회의(SLM)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각료급회의에 회원국 각료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제선정의 적실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DAC의 하부조직(subsidiary bodies) 개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원조효과작업반 외에 여타 네트워크의 활동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유엔 등 다른 개발원조 관련 포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